전남 해양수산원, 토종새우 보호 나섰다

대하 종묘 2500만마리 방류 20억 상당 어업인 소득 기대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이 사라져 가는 토종새우(대하)의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국제 갯벌연구 소는 전남 연안의 수산자원 증강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15일 갑각류 자원 중 경 제적 가치가 높은 대하 종묘를 2500만 마 리를 방류했다.

이날 방류한 대하 종묘는 국제 갯벌연구 소가 자체 생산한 것으로 고흥, 무안, 영 광, 신안 등 해역에서 이뤄졌다.

지난 4월 고흥 해역에서 포획한 어미 대하(160마리)를 김윤설 연구사가 30여 일간연구소에서 부화해 관리한 것이다.

평균 크기 1.2cm로 연안 해역에 방류시 생존율이 높고 성장속도가 빨라 올해 10 월 이후 체장 15~18cm(체중 40g 내외)의 상품가치가 있는 크기로 성장할 것으로 보 인다.

연안에서 멀리 이동하지 않는 습성을 감 안하면 이번 방류로 20억 원 상당의 어업 인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

이인곤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장은 "전남 연안의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하반 기에도 국제 갯벌연구소에서 주꾸미, 낙 지, 민어 수정란, 백합 방류 사업과 보리새 우, 칠게 등 시험 연구를 통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고소득 품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해 우량 종묘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0년 초반 둑을 쌓아 기르는 축 제식(築堤式) 양식장의 주 양식 품종이었 던 대하는 바이러스 등 질병으로 인해 붕 괴돼 '흰다리새우' 양식으로 전환됐다.

실제로 대하 생산량은 2006년 1022t이 었던 것이 2009년 81t, 2013년 42t으로 대폭 줄었다. 이에 따라 대하 양식산업의 복원 및 자원 조성을 위해 각 지자체 연구소에서 매년 대하 종묘를 방류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북 소식



정읍시 옛 군청에 소공연장 조성

48억 투입 내년 12월 완공

정읍시가 중앙로 옛 군청 자리에 상설 소공연장을 신축한다. 〈조감도〉

정읍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에 부응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 고 침체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옛 군 청부지(7491㎡)에 정읍지역 예술전당으 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연지 아트홀'을 건립한다"고 15일 밝혔다.

총 48억원이 사업비가 투입되는 연지 아트홀은 내년 12월께 완공될 예정이며, 공연장 250석을 비롯해 사무동과 다목 적실, 부대시설 등이 들어선다. 앞서 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반 시민(340명)과 구도심 상권 이용객(330명), 문화예술 종사자(50명) 등을 대상으로 건립의 필요성과 부지의 적합성,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접근의 편의성, 사업시행의 용이성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인근 CGV 정읍점과 여성문화관 등을 연계한 문화벨트가 형성됨에 따라 시민들이 문화를 즐길수 있는 상설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은물론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음으로써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이순신 대교 포장층 일부 균열 … 전면 보수공사 실시

내달부터 9월까지 4개월간 2차로씩 진행…통행은 가능

여수 세계박람회를 앞두고 지난 2012년 초 임시개통한 이순신 대교의 일부 구간 포장 층에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 다.

전남도는 15일 "이순신 대교 시공사인 대림산업(주) 측이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이순신 대교 포장층 전체 구간에 대해 보수작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수 작업은 상·하행 전체 4차로 가운데 2차로씩 진행, 통행에 불편을 없을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도는 일부 구간 포장 층에 균열이 발생하자 응급복구를 실시했으며, 대림산업 (주)은 원인 규명을 위해 한 대학에 이순신대교 '에폭시 아스팔트' 포장상태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했었다. 용역 결과 전체 5cm두께의 포장을 완료한 후 차량이 통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박람회를 앞두고 임시

로 2.5cm만 시공한 뒤 임시개통하면서 포 장 층의 피로 누적으로 강도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포장 당시에 비까지 자주 내려 포장 층이 더 연약해졌으며, 박람회이후 2.5cm 포장을 덧씌웠으나 균열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순신 대교에는 기존 공법에 비해 포장 두께가 얇아 교량의 무게를 줄여주는 '에 폭시 아스팔트' 공법을 사용했으며, 이로 인해 주경간 길이(주탑과 주탑 사이의 거 리)가 기본계획 1100m보다 445m가 늘어 날 수 있었다. 시공사 측은 이번 보수작업 에서 기존 포장 층을 모두 뜯어낸 뒤 다시 포장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임시 개통 결정은 시공사에서 한 만큼 보수작업에 소요되 는 60억원 이상의 비용은 모두 시공사에 서 책임질 것"이라며 "일부 구간의 포장 층이 파손되고 있어 향후 유지관리를 고 려할 때 전면 재포장이 필요하다"고 말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해남군-지역기업 인턴 협약 4개 기업, 인턴 6명 채용키로

해남군이 관내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 년들의 구직난 해소에 발벗고 나섰다.

해남군은 지난 13일 군청 상황실에서 관 내 중소기업 4곳과 청년 인턴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에 나섰다.

참여 기업은 중소기업 청년인턴지원 사업에 공모해 선정된 ㈜보성레저 개발(대표 오방열), 해남자연농업 영농법인(대표 황상덕), 땅끝포크 영농법인(대표 서정훈),㈜도언식품(대표 김강건)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군은 채용기업에 인턴 지원금을, 인턴에게 취업장려금을 각각 지원한다. 4개 기업체는 총 6명의 인턴을 채용할 예정이다.

인턴 채용기업에게는 총 9개월(인턴 3 개월, 정규직 전환후 6개월)간 80만원씩 지원되며, 인턴에게는 월 20만원씩 6개월 간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총 5800만 원을 지원한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담양 죽로차 만들기

7 (사)담양죽로차 연합회(회장 이숙재) 회원들이 최근 대밭에서 채취한 찻잎을 무쇠솥에서 덖고 있다. 죽로 차는 대나무 숲에서 이슬을 먹고 자란 차나무에서 딴 잎을 사용해 만든 한국 전통차이다. 〈담양군 제공〉

고창 출신 국창 '만정 김소희' 도록 출간

고창 판소리박물관 주관 생애·예술활동 등 조명

고창군이 고창 흥덕면 출신 국창(國唱) 만정 김소희(1917~1995) 선생의 생 애와 예술세계를 조명한 도록을 펴냈다.

고창군 판소리박물관은 최근 '국창 만 정 김소희 유품 도록'(사진)을 출간했 다.

'1부 김소희 갤러리'에는 김소희 명창 의 딸인 박윤초 명창과 제자들이 소장하 고 있는 많은 사진과 해설을 통해 김소 희 명창의 삶을 조명하고 있다.

2부에서는 김소희 명창의 문화재 인 증서, 상패, 훈장 등 평생의 예술 활동을 다뤘다.

3부에서는 소리북과 악기, 4부에서는 일제 강점기부터 나온 음반들을 조명하 고 있는데, 만정판 판소리가 완성되기까 지의 기나긴 여정을 보여준다.



5부에서는 복식과 공연 소품, 6부에서는 제자들과 주고받은 편지, 7부에서는다재다능한 소리꾼으로서의 김소희 면모 중하나인 서예 분야에서 국선에 입선한 작품들이 실려 있다.

8부에서는 만정 김소희 명창의 생활 유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



